

## 선생님이 예쁜 아이만 좋아해요 ❀

Q)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한 아이만 유독 이뻐하십니다. 그 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비교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 자신이 싫어지고 질투와 미움이 자꾸 생깁니다.

A) 유일한 나에 대한 금지를 가지세요.

미리의 고민을 꼼꼼히 읽으며, 저는 배시시 웃음을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구요? 딱 20여 년 전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고시절이란 게 얼마나 섬세한 시절이던지...몽클 치솟는 향수와 함께 그 당시에 불안고 씨름했던 수많은 고민들까지도 생생히 떠오르는군요. 무엇보다도 '그 선생님이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만으로도 미리의 사려깊고 편협하지 않은 마음씨를 느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 눈에 금세 띄게 마련입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바람을 가질 것입니다. '여성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오랜 인식과 함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 더 살아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예뻐서 사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것은 '예쁘다'라는 감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5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얼굴이 없다는 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우리의 얼굴 면적이라야 고작 한 뼘밖에 안되잖습니까? 55억에 이르는 각 사람에 대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5억 중의 '유일한 나'로 하나님께서는 미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쁘게'와 '덜 예쁘게'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누구와도 닮지 않게 독특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쁜 친구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 자신에게 실망하는 마음은 정말 여학생다운 마음입니다. 질투도 미움도 생기는 게 당연하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남보다 더!'라는 본능적인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 요구는 우리 인간들의 삶을 고무시켜,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5형제 중 둘째입니다. 딸이 셋이었는데 가운데 딸이었지요, 언니도 예쁘고 동생도 예뻐는데 선생님만 미운 오리새끼처럼 못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이없게도 선생님은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는 걸 도무지 깨닫지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뭐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미스유니버스처럼 매사에 거만하게 행

동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작고 못생긴 장난꾸러기가 한없이 쿨대 높게 구니, 아마 돈키호테를 보는 심정들이었을테지요. 스스로는 미인에다 천재였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지요. 제가 천재도 더더욱 미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큰 갈등이 몰아닥쳤습니다.

아마 여중 시절로 기억됩니다만 고민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흠… 겉모양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이니 할 수 없다, 미인이 아니란 걸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러나 스스로 미인이라고 느껴왔던 마음속의 착각은 어떻게 하지? 그것도 없애야 할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은 즉시 나왔습니다.

미인이 갖는 높은 자긍심이 나를 격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썩 괜찮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흔 살인 지금까지도 ‘스스로 미인’입니다. 질투는 자기의 열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F. 베이컨은, 질투는 항상 남과의 비교에서 생기므로 비교가 없는 곳에서는 질투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나’가 왜, 무엇 때문에 비교를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였고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증입니까? 예쁜 친구를 보고 덩뎡한 것은 마음의 크기가 조금 넉넉해서입니다. 예쁜 친구를 보고 “아 예쁘다, 참 예뻐!”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마음, 아주 넉넉한 마음,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진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집니다. 미운 아기를 보았습니까? 반면 예쁜 할머니를 보셨나요?

우리의 외모는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랑하여 남을 즐겁게 해주는 재치나, 상냥한 마음, 따뜻한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지닌 마음!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이 힘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파스칼의 말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여성이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오직 하나뿐인 자신의 매력’을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하나하나를 빚어내셨는가를 안다면 예뻐서 으쓱대고 못생겨서 주눅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좀더 마음을 키워보세요. 선생님은 하늬와 예늬라는 딸만 둘인데요, 아이를 낳을 때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닮아 못생겼으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솔직히 고민을 털어놓고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두 딸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요.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못생겨서 고통 받는 마지막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 가난해서 고통 받는 마지막 사람이 내가족 중의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고 싶은 것 가족 중의 누가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대신…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나쁜 것을 대신해주고 싶어, 단

숨에 자신을 버린 엄마의 마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한 귀퉁이를 조금만 떼어냅니다. 그러면 나보다 예뻐서 더 귀염 받는 친구를 향해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질투와 미움이 들어 있는 마음주머니를 탈탈 뒤집어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일한 나'가 되기 위한 매력주머니를 달아맵시다. 매력은 무지(無智)에서는 발산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위트를 아는 사람, 상식이 풍부한 사람, 말을 안 해도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이 친근한 사람은 단 몇 마디 대화로도 표가 납니다.

많은 지식과 사색만이 매력의 샘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쁜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매력은 개성입니다. '유일한 나'를 '유일한 개성'으로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면의 얼굴도 친구보다 덜 예쁘니까? 덜 날씬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는 내면의 얼굴에 신경을 쏟으십시오. 단 하루라도 세수를 안하고는 밖에 못 나가면서 우리가 팽개쳐둔 내면의 얼굴은 어떨습니까? 겉사람 말고 속사람 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주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오래 된 장맛처럼 숙성된 인품을 주는 매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력적인 숙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